

보성군 서편제 창작공연 선 보인다

'심·별' 문예회관 지원사업 선정 판소리·랩·트로트 접목 높이 평가 1억원 지원받아 12월까지 무대

보성군의 서편제 소재 창작공연 '심·별'이 전남에선 유일하게 정부의 '문예회관 특성화지원사업'에 선정돼 화제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주관한 '문예회관 특성화지원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특화 장르를 활용해 창의적인 공연 콘텐츠를 발굴·지원하는 공모사업이다.

전국 69개 문예회관의 총 79개 작품이 접수된 이번 공모에서 '심·별'은 1차 프리젠테이션, 2차 쇼케이스 공연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작품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심·별'은 지역 전통문화인 서편제 보성소리를 소재로 판소리 '심청가'와 '별주부전'을 결합한 마당놀이 형식의 공연이다. 특히 전통 판소리의 핵심 가치인 화와 흥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트로트·랩·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점이 높이 평가받아 예향의 본고장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로써 군은 총 1억원(국비 9000만원, 군비 16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이번 공모에서 20분짜



정부의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서편제 기반 창작극 '심·별'의 한 장면.

리 쇼케이스용으로 제작된 '심·별'은 본작품(1시간 20분용)으로 완성하게 된다. 완성된 작품은 연내 2회 상연하게 된다.

이번 선정은 기획·예술감독·연출 분야의 전문가들 영입과 협업의 알찬 결실에서 비롯됐다. 작품 기획 이병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컨설턴트, 예술감독 박준명 씨, 연출 강용복 극단 '논다' 대표가 각각 맡아 환상의 호흡을 맞췄으며, 출연진은 보성군립국악단원과 조선대무용과생들로 구성됐다.

보성군은 오는 12월까지 공연 '심·별'의 완성도

를 높여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정식 공연할 예정이다. 향후 지역축제의 대표 공연으로 활용하고 전국 공연장 유통을 통해 보성소리의 대중화와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의 전통문화가 지닌 예술적 가치와 현대적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순천시 청소년 밴드 'LUX(빛)' 운영 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예술치유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예술 프로그램 '위기 탈출 밴드부'를 운영한다.

'위기 탈출 밴드부'는 자해·자살 충동, 불안·우울, 가정해체, 경제적 취약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음악 활동을 통해 심리적 회복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밴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또래와의 유대 속에서 안정감과 성취감을 쌓아가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 보컬 등 각 파트별로 구성된 팀원들이 'LUX(빛)'라는 팀명 아래 정식 활동을 시작했다. 학기 중에는 정기 연습과 학교생활을 병행하고, 방학 기간에는 공연 및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사회와 소통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밴드활동 관련 문의는 순천시 평생교육과 청소년안전망팀(061-749-4233)으로 하면 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금호석유화학, 여수산단에 CCUS 설비 준공

490억 투자...탄소 자원화 활용

금호석유화학(주)이 지난 16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제1고무공장에서 CCUS 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에 구축된 CCUS 설비는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포집한 뒤 이를 액화탄산으로 전환하는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 이 설비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장에서 생산된 액화탄산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세정, 선박 건조 및 중공업 등에서의 용접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설비가 본격 가동되면 연간 약 6만9000t의 이산화탄소가 회수돼 산업 소재로 재활용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비 도입으로 13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금호석유화학과 자회사인 케이앤에이치특수가 총 490억 원을 투자해 추진했으며, 국내 순수 기술을 기반으로 한 CCUS 설비라는 점에서 수입 대체 효과와 기술 자립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CCUS 설비 준공은 탄소중립 시대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여수시는 앞으로도 친환경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도자기, 외국 작가와 만나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해외입주작가 프로그램 운영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이 고흥분청사기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 입주작가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제 도자 창작 워크숍을 통해 국제교류 기반을 다져온 박물관이 해외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고흥분청사기의 현대적 해석과 예술적 확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총 4명의 해외 작가가 6개월간 순차적으로 박물관에 입주해 창작활동을 펼친다.

입주작가들은 고흥지역의 도자기 원료와 전통 기법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창작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특히 창작 과정 전반에서 박물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의 도자 전통에 대한 이해와 예술적 해석의 폭을 넓혀가자 한다.

이를 통해 해외작가들에게는 고흥과 조선 분청사기 문화에 관한 심도있는 탐구의 기회가 주어지며, 박물관은 이들의 독창적인 시선을 통해 분청사기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과 현대적 가치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작가들이 제작한 작품 일부는 박물관에 기증되어 전시 및 교육 자료로 활용되며, 이는 도자문화 자산의 축적은 물론 박물관 소장품의 품격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그램의 첫 시작은 에라도르 출신 도예 작가 토마스 카르피오다. 그는 남미 안데스 지역의 신화와 전설을 주제로 한 조형 작업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고흥에 머무는 동안 분청사기 기법과 화장도를 활용한 새로운 작품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9월부터는 ▲아델라이드(프랑스) ▲누



고흥 해외입주작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에라도르 출신 토마스 카르피오 작가가 작업하고 있다.

리아포사즈(스페인) ▲마르티나(이탈리아) 작가들이 차례로 입주한다. 이들 중 일부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도자아카데미(IAC) 회원으로, 고흥 도자문화의 국제 네트워크 형성과 예술 교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해외 예술계에 '고흥'이라는 지역의 이름과 문화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외 입주작가 프로그램은 단기 중심의 국제도자워크숍을 넘어, 장기 체류를 통해 고흥의 환경과 전통 도자 재료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박물관과의 실질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는 고흥 도자문화가 세계와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국제 협업 기반으로 발전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광양시, 캐나다 밴쿠버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사·학생 10명 5일간 교류 생활

광양시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의 두 번째 교류 일정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동광양중 일원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류에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크리스천 아카데미(BCCA) 대표단 10명(교사 5명, 학생 5명)이 참여했다. 대표단은 동광양중 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지역의 문화와 학교생활을 체험했다.

이번 교류 학생들은 광양항 안내선 견학, Park 1538과 제철소 탐방, 지역 문화관광지 방문 등을 통해 광양의 산업과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동광양중 정규수업 참여, 한식 만들기 체험, 학교 가요제 관람 및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학생들과의 우정을 쌓았다.

특히 지난 14일 동광양중 체육관에서 열린 환영

식에서는 BCCA 미겔 저우(Miguel Zhou) 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캐나다 학생들이 광양을 방문한 소감을 발표하며 양교 간 우의를 다졌다. 이어 동광양중 학생들과 BCCA 학생들이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서로의 학교생활과 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높였다.

동광양중과 BCCA의 교류는 지난 2023년 11월 학교 자체 매칭 이후 이번이 네 번째이다. 두 학교는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최경화 동광양중 교장은 "양교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친구가 되며 세계시민으로 한 걸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광양시와 협력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